

<2016년 1월 3일 주일말씀>

교육과 차원

본 문 야고보서 2장 26절

『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』

◎ 할렐루야!

2016년 <교육과 차원의 해, 솟아오르는 해>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.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. 할렐루야!

◎ 여러분 모두에게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2016년 <교육과 차원의 해>라는 주제에 맞게,

오늘은 ‘차원’을 높이도록 ‘교육하는 말씀’을 해 주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◆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‘앞’에 놓고 보면,

아직 ‘한 해의 끝’이 멀고 까마득합니다.

그런데 2015년을 생각해 보세요.

한 해가 다 지나고 ‘맨 끝’에서 보니, 1년이 순간 지나갔지요?

올해도 동일합니다.

앞에서 보면 까마득하지만,

올해가 다 지나고 보면 순간 지나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

- ◆ 인생 일생도 그러합니다.

0대 때와 10대 때 ‘앞날의 인생’을 보면 까마득합니다.

그러나 살다 보면, 잠자고 일어난 것같이 시간이 훌 지나갔습니다.

- ◆ 그러니 해마다 “시간이 짧다. 벌써 갔네.” 하지 말고,
매일 그 날의 시간을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실컷 써야 됩니다.

- ◆ 사람은 시간에 쫓기면,
오히려 서두르고 확 밀어붙여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.

선생은 매일 1시간 동안 운동을 하는데,

30분밖에 시간이 없을 때에는

오히려 서두르고 확 밀어붙여서 더 많은 운동을 합니다.

편지나 말씀을 써서 보낼 때도

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많은 일을 하기보다,

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겨서 ‘서두를 때’ 오히려 많이 하게 됩니다.

- ◆ 시간에 쫓겨야
서둘러서 하게 되어 ‘시간 축지’를 하고 살게 됩니다.

- ◆ 누구든지 <시간>을 다스리지 못하면, 문제가 생깁니다.
고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.

- ◆ <시간>은 ‘제대로’ 써야 됩니다.

그냥 흘려보내지 말고, 여유 부리며 흘려보내지 말고,
충분히 할 일을 하면서 미련 없이 충분히 써야 됩니다.

그래야 무슨 일이든지 ‘제대로’ 됩니다.

- ◆ <시간과 때>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입니다.

고로 우리가 <시간과 때>을 지켜야 역사하십니다.

<때>가 지난 후에는 100만 명이 와서 해도 소용없습니다.

왜요? 그때는 이미 끝났으니, 평생 영원히 안 합니다.

- ◆ <시간>에 대해서 ‘교육’ 받고,
절대 ‘시간 차원’을 높여야 됩니다.

- ◆ 작년에도 <시간>을 제대로 못 써서
각자 ‘놓친 것’이 너무 많습니다.

올해 또 <시간>을 제대로 못 써서 놓치면,
진짜 ‘신앙 부도’가 나고 ‘기회’가 없어집니다.

- ◆ <시간의 축복>을 받아야 됩니다.

<자료>가 있고 <기술과 능력>이 있어도
<시간>이 없으면 못 하니, 꼭 ‘시간의 축복’을 받아야 됩니다.

- ◆ <시간의 축복>은 어떻게 해야 받을까요?
<시간>을 지켜야 <시간 축복>을 받습니다.

아무리 잘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어도,

아무리 잘할 수 있는 자료와 기술과 능력이 있어도,
<시간>을 지켜야 ‘축복’을 받게 됩니다.

아무리 싱싱하고 신선하고 좋은 음식 재료가 있어도,
그것을 가지고 훌륭한 요리를 만들 기술과 능력이 있어도,
<시간>을 지키지 않으면 ‘제대로 된 음식’이 안 나옵니다.

<시간>을 안 지켜서
음식이 안 익었거나, 너무 많이 익혀서 타 버리면 실패입니다.

- ◆ 작년에 선생은 5분 빨리해서
‘한 교회의 성전을 사는 문제’가 해결됐습니다.

5분 빨리 안 했으면,
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애타게 구하여
하나님이 주셨어도 뺏겼습니다.

모두 이것을 거울로 삼고, 치타같이 쫓을 때 뛰면서 행해야 됩니다.

- ◆ 만사에 작고 큰 성공을 하려면, 꼭 ‘시간’이 들어갑니다.
꼭 ‘시간’을 지켜야 됩니다.
시간을 지키려면, 누구나 다 지킬 수 있습니다.

정말 지키려 하는데 ‘실력’이 부족해서
시간을 못 지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.

<시간을 지키는 데>는 그렇게 ‘큰 힘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,
그렇게 ‘큰 어려움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.

썩은 정신으로 행하니, 시간이 안 지켜지는 것입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<시간>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, 다음 말씀을 하겠습니다.

- ◆ 성자는 승천하실 때 ‘하루’도 연장 없이 ‘정한 날’에 가셨습니다.
만일 3·16 다음 날에 가셨으면 ‘하루’연장하고 가신 것입니다.

이와 같이 <만사의 모든 일>도 ‘연장’은 없습니다.

하루 24시간을 연장할 수 없고, 1년 365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.

고로 꼭! <시간>을 지켜야 됩니다.

시간을 지키는 생활을 하지 않아서

<평생 같이 살 사랑하는 자>를 ‘시간을 지킨 자’에게 뺏기고,
평생 후회하며 사는 사람도 봤습니다.

- ◆ 작년 초에 ‘**잊으면 죽는다.**’라는 귀한 말씀을 주면서,
왜 잊으면 죽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.

올해는 이것을 기억하세요! - **시간을 안 지키면 죽는다.**

시간을 안 지키면

삼위와의 대화도 죽고, **사랑**도 죽고,

할 일도 못 하고 죽은 격이 되고,

하고자 하는 마음도 식어 죽어 버리고,

실제로 **육**이 죽기도 하고, **생각**과 **영**이 죽기도 합니다.

- ◆ **시간을 안 지키면 죽는다.**

이 말을 명심하고, 올해 초반부터 꼭

<새벽 기도 시간, 삼위와 주와의 대화 시간>을 움켜쥐고

매일 지키기를 축원합니다!

<시간>을 지키면서 행하면, 매일 얻습니다. (믿습니까? 아멘.)

<전환>

- ◆ 올해는 <교육의 해>입니다.

그리고 교육받고 배워서 <차원을 높이는 해>입니다.

다른 말로 <솟아오르는 해>입니다.

만사에 다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.

이것이 올해 ‘황제하는 조건’입니다.

- ◆ <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>도 한 차원 위에 있고,
<하나님, 성령님, 성자가 주려고 하는 것>도 한 차원 위에 있습니다.

한 차원 더 높일수록, 거기에 ‘자기가 원하던 것’ 이 있습니다.

한 차원 더 높일수록, 거기에 ‘삼위가 주실 것’ 이 있습니다.

그러니 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‘차원’ 을 높이기 바랍니다.

그 차원에 가면, ‘원하던 것, 기도하던 것’ 이 있습니다.

- ◆ 이미 작년 12월 6일 주일에

올해 방향인 ‘차원’ 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었습니다.

미리 알라고 미리 말씀해 줬습니다.

<2016년은 교육과 차원의 해>라고 막연히 알고만 있다가,

새해 1월 1일부터 갑자기 ‘차원을 높여라!’ 하면 못 합니다.

고로 서서히 새해를 준비하며 차원을 높이도록

약 한 달 전에 미리 ‘차원’에 대해서 말씀해 줬습니다.

작년 12월 6일 주일말씀을 잊었으면,
문서도 읽어 보고, 녹화된 말씀도 다시 들어 보기 바랍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사람이 <차원>을 높이려면, 꼭 배워야 됩니다.

<영재>라도 거기서 더 배워야 차원을 높여 그 천재성이 빛이 나고,
<천재>라도 거기서 더 배워야 차원을 높여 다음 단계로 갑니다.

<보통 사람>이라도 배우면, 배운 만큼 알고 차원을 높이게 됩니다.

<바보>라도 배우면 배운 만큼 똑똑해지고,
<미련한 자>라도 배우면 배운 만큼 지혜로워집니다.

- ◆ 선생이 성자와 함께 이 역사를 시작할 때,
가장 크게 깨달은 것 중의 하나가 ‘인간의 무지’입니다.

<충분히 알고 가치를 제대로 알고 살아야 할 것>인데,
가치를 모르고 건성으로 외식으로 알고 행하며 사니,
<무지>로 인해 망하고, 다치고, 죽고, 실패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.

- ◆ 정말 충분히 알고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알려면,
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주시는 ‘그 말씀’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.

잠깐만 배워도 그것에 대해 알기에 평생 쓰고,
그로 인해 죽을 데서 살기도 하고, 수백 배 유익을 보기도 합니다.

그런데 사람들은 ① 안 배우고, ② 배워도 가치를 모릅니다.

- ◆ 배우고 있다고요?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?

학문도 배우지만, 인생도 배워야 됩니다.

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됩니다.

성령의 뜻을 배워야 됩니다.

구원에 대해, 휴거에 대해 배워야 됩니다.

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됩니다.

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배워야 됩니다.

- ◆ 한 번 배우고 끝날 것이 아니라

성삼위와 주 앞에 어떻게 행하며,

어떻게 인생을 살며,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하는지

를 진지하게 배워야 됩니다.

목사가 됐어도 늘 주께 배우고,

장로가 됐어도 늘 주께 배우고,

사명을 맡았어도 늘 주께 배우고,

평신도라도 늘 주께 배우고,

새로 온 자라도 배워야 됩니다.

목사라도 늘 주께 배우지 않으면,

자기 방식, 자기 수준대로 성도들을 이끌게 됩니다.

그렇게 하다가는 교회가 ‘한 회사’ 같이 되고 맙니다.

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끝납니다.

- ◆ 항상 교회마다 한두 명씩

교회를 ‘개인 회사’ 대하듯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

그 습관을 고치지 않고 계속하는 자는 ‘주와 싸우는 자’입니다.

결국 ‘주의 말씀의 검’ 으로 찔 수밖에 없습니다.

직책을 맡고도 본이 되지 않으면,
구원받고 휴거될 생명들을 위해서
그 직책을 내려놓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.

◆ 누구든지 늘 배워야 됩니다.

배움을 멈추면 <차원>을 높일 수 없고,
<자기 주관>에 갇히고 <자기 수준>대로 행하다가
결국 <자기 길>을 가게 됩니다.

◆ <휴거에 대해 모르는 자>도 배우고,
<휴거되지 않은 자>도 배워야 됩니다.

<휴거>에 대해 안 배우고 휴거된 자는 영~원히 없습니다.

◆ <휴거된 자>라도 배워야 됩니다.

배워야 더 행하게 되고, 더 얻게 되고,
차원을 높여 ‘영’ 도 더 이상적으로 변화됩니다.

◆ 휴거됐어도 ‘휴거 차원’ 을 안 높이면,
마치 ‘집을 짓다가 만 자’ 와 같습니다.

완성은 ‘300’ 이 아닙니다.

<300선>은 ‘과정’ 입니다.

<300>으로 겨우 ‘황금성의 문’ 을 열고 들어갔습니다.

거기서 더 올라야 ‘온전히 황금성에 사는 신부’가 되어
삼위일체의 소원대로 ‘이상의 역사’가 이루어집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◆ <휴거의 차원>을 어떻게 높이는지,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.

- ▶ 학교에서도 ‘어떤 한 과목’만 잘한다고 해서
‘전체 과목의 점수’가 잘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?

<과목>마다 다 배우고 알고 행해야 <전체>가 다 잘됩니다.

- ▶ 이와 같이 <휴거 신앙>도 그러합니다.

신앙에는 전도, 강의, 관리, 기도, 말씀 실천,
좋은 성격, 주와 심정 일체, 삼위와 주와 소통,
사랑, 감사 생활, 성삼위께 영광 돌리기,
봉사, 자기 사명의 책임 다하기 등이 있습니다.

그런데 ‘어느 한 가지’만 잘한다고,
그것으로 인해 ‘전체’가 영향을 받아서
모두 잘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.

가령 ‘전도와 기도’만 잘한다면,
그쪽만 <휴거 차원>이 높습니다.

가령 ‘강의’는 잘하는데 ‘기도’는 안 한다면,
그 면에서는 <휴거 차원>이 높지 않고 그 위치에 있습니다.

어떤 사람은 ‘자기 사명을 하는 데’는 열렬한데,
‘성격’을 못 고쳐서 보는 자들에게 충격을 받게 합니다.

▶ <휴거 차원>을 높이려면,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해야 됩니다.

- ◆ 특히 <지도자 사명, 지도자 직책>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
특히 ‘사명’ 과 함께 ‘인격’ 이 따라 줘야 됩니다.

그런데 ‘사명’ 과는 달리 ‘인격’ 이 별로인 자들이 있습니다.

이에 보는 자들이 ‘그 인격과 말투와 행실’ 을 보고,
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.

이런 지도자는 본이 안 되니,

지도자를 하느니 **평신도**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.

꼭 고쳐야 됩니다. 안 고쳐서 그러합니다.

옥토 밭에 가시나무가 나 있으면 뽑아야 하듯이,
자기 속의 ‘가시나무 같은 뽕족한 성격’ 을 다 뽑아 없애고
변화시켜야 됩니다.

그러면 즉시 ‘그 면에서 차원’ 이 높아지고,

그로 인해 ‘전체 휴거 차원을 높이는 데’ 도 영향을 끼칩니다.

- ◆ 저마다 ‘**자기가 고칠 것**’ 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.
‘**자기가 부족한 것**’ 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.
‘**차원 높여야 할 것**’ 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.

그것을 꼭! 고치고 행해야 됩니다.

- ◆ 방에 휴지 한 쪽이 떨어져 있어도 치우지 않으면 그냥 있지요?
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그냥 있습니다.

이와 같이 <할 일>을 두고 행하지 않으면, 평생 그냥 있습니다.

자기 혼자 하지 말고 ‘하나님의 뜻’을 두고
‘하나님과 같이’ 해야 됩니다.

- ◆ 20대에 ‘자기가 해야 될 일’인데 안 하면,
50대가 돼도 그냥 있습니다.

<자기가 행할 일>인데, 누가 대신 해 줘니까?

그러면 ‘자기 행실’을 볼 때 창피하여
무슨 맛으로 밥을 먹고 잠을 잡니까?

열심히 일하고 행하니
밥맛도 꿀맛이고, 잠자는 맛도 꿀맛인 것입니다.

그로 인해 얻으니,
얻은 것이 작든지 크든지 그리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.

<생각>을 움직이지 않고 <몸>을 움직이지 않는 자는
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.

- ◆ <할 일을 안 하는 사람>을 ‘혼계’에서 보니 -

한쪽 발은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,
한쪽 발은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고 있었습니다.

어떤 자는 한쪽 눈은 떠져 있었고,
다른 한쪽 눈은 소경이 되어 감은 채 다니고 있었습니다.

어떤 자는 상의는 입고 있었고,
하의는 벗고 다니고 있었습니다.

<신앙의 마음과 믿음>은 좋은데,
<행할 것>을 행하지 않고 사는 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.

- ◆ 한번은 혼계에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,
자세히 보니 섭리사를 나가 악평하는 자였습니다.

그 사람은 내 앞에서 높은 바위 위에서
아래에 있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.

그리고 계속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

물속에 들어가 나오지 못하니, 죽은 자가 되었다는 계시였습니다.
그와 같이 생각이 죽고 영이 죽었다 함이었습니다.

- ◆ <신앙의 삶>은 ‘마음으로 사는 삶’ 이 아닙니다.
‘행하여 변화되고 만들면서 사는 삶’ 입니다.

- ◆ 여러분의 삶도 보세요.
<마음>으로만 생각하고 삽니까?

음식도 ‘마음’ 으로만 먹고,
일도 ‘마음’ 으로만 하고,
공부도 ‘마음’ 으로만 하면서 삽니까?

실제로 ‘육’ 을 가지고 행하면서 살지요?

우리의 삶은 ‘실제로 행하면서 사는 삶’ 입니다.

- ◆ <신앙>도 그러합니다. <휴거 차원을 높이는 것>도 그러합니다.
행하면서 만들어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월명동에 ‘새로 만든 폭포’가 있습니다.

이 폭포는 20년 전에 만들려고 구상했습니다.

1995년경 <호수>를 만들면서 동생 범석이에게

“앞산 쪽 파인 곳에 자연스럽게 물이 내려가는 폭포를 만들 것이다.

아직 구상은 못 받았는데, 그곳에 만들 것이다.” 했습니다.

그런데 그동안 ‘돌’이 없어서 <일반 조경>을 해 놓았다가,

드디어 2015년에 ‘하나님의 구상’을 받았습니다.

그리고 범석 목사를 시켜서 6개월 동안 행하여 만들었습니다.

바로 이 폭포입니다.

(*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.) <폭포 영상>

- ◆ 야심작 백보좌 조경이 좌우로 길이 130m인데

그 옆에 폭포수 조경까지 만들었으니,

이제 전체 길이가 250m가 되었습니다.

배로 하니 상상도 못 하게 웅장하게 됐습니다.

- ◆ 각종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역사하심으로

선생과 섬리인들이 몰두하여 만들었습니다!

“아무리 힘들어도

하나님이 지키시니 ‘생명의 위험’은 없다.

그러니 악착같이 하자!” 하여

2015년 마지막에 정말 힘든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.

- ◆ 이같이 ‘만들고자 하는 정신’을 가지고 ‘행해야’
만들어지고 차원이 높아집니다. <끝>

- ◆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개발하는 것도
<하고자 하는 정신>을 가지고 <행하면서> 만듭니다.

<신앙의 차원, 휴거의 차원>을 높이기 위해 행하는 것은
위험한 일도 아니고, 모험도 아닙니다.

누구나 배우고 행하면, 다 할 수 있습니다.

자기가 행한 것을 가지고, 영원히 자기가 얻고 누리게 됩니다.

- ◆ 그러니 올해는 2단, 3단, 4단씩 <차원>을 높이기 바랍니다.

언제부터요? - <시간>을 지켜야 성공한다고 했지요?

1월 첫째 주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차원 높이기입니다.

매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<성삼위께 영광 돌리는 주간>인데,
올해는 말씀대로 행하며 차원 높여 영광 돌리기입니다.

<전환>

(* 여기서 잠깐 <폭포수>와 <호수>가 ‘어우러진 사진’을 보여 주면서
여러분 모두와 지도자들을 교육하며 말씀해 주겠습니다.)

<폭포수와 호수가 어우러진 전체 사진>

◆ 원래 이 <폭포수>는

앞산 맨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게 하려고 했습니다.

그런데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, 조금 작게 만들었습니다.

이 폭포수는 작지만 ‘큰 작품’입니다. 왜요?

<폭포수 자체>는 작지만,

그 밑의 ‘수반 역할’을 하는 <호수>와 어울리니 큰 작품입니다.

위에 <폭포수>가 생기니,

이제 <호수>도 ‘고요한 호수’가 아니라

‘살아 있는 호수’가 되었습니다!

◆ <폭포수>와 <호수> 전체를 보니, 어울리지요?

이처럼 같이 어울리고 함께해야 아름답습니다.

◆ <웅장한 것> 속에

<아기자기한 것>이 들어 있어야 ‘좋은 작품’입니다. <끝>

(* <월명동 대자연성전의 야심작> 사진도 볼까요?)

<야심작 사진 세 장 준비

위에 경사진 모습 - 아래 반반한 모습 - 전체 모습>

* 한 화면에 세 개의 사진 넣고,

위쪽 - 중간과 아래 쪽 - 전체 모습 자막 넣는다.

◆ <월명동 야심작>을 보세요.

<위>에는 경사가 험하고 큰 돌을 세워서 뽐족하게 쌓았지요?

그러나 <중간부터 아래>까지는

돌을 눕혀서 반반하게 쌓아 앉기 좋게 만들었습니다.

이곳에서 편안히 앉아서 찬양도 하고, 말씀도 듣고, 기도도 합니다.

그래서 <야심작>은 ‘자연성전에서 제일 험한 곳’ 이자

‘자연성전에서 제일 편한 곳’ 입니다.

웅장하기도 하고, 편안하게 접근성이 좋기도 합니다. <끝>

◆ 사람도 그러합니다.

큰사람은 ‘웅장’ 하지만 ‘접근성’ 이 부족합니다.

그러니 큰사람일수록 외롭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.

예수님을 봐요.

인생들을 구원하는 ‘그 시대 최고로 크고 웅장한 자’ 였지만,

그 사명을 가지고도 ‘최고 낮은 자리’ 까지 내려와

생명들을 일일이 살피며 관리하며 구원하셨습니다.

◆ 지도자들도 ‘웅장’ 하기만 하면 무섭습니다.

‘접근성’ 이 좋아야 됩니다.

가장 아래 깊은 단계, 낮은 단계까지 내려가서

생명들을 살피야 됩니다.

지도자는 깊고↓ 높아야↑ 됩니다.

◆ 지도자는 ‘백성들’ 과 가까이 접해야 크게 빛을 받습니다.

웅장해도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면, 제대로 지도할 수 없습니다.

그래서 ‘심방’ 도 해 주고 해야 됩니다.

선생은 엄청나게 ‘심방’을 다니면서 생명들을 살렸습니다.

기성 교회 목사들도 ‘심방’을 다니면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.

- ◆ <웅장함> 속에 <아기자기함>이 있어야 ‘작품’이라고 했지요?

<웅장함>은 ‘말씀을 전해 주고 영적으로 이끌어 주는 것’이라면,
<아기자기함>은 ‘심방하며 생명들을 살피는 것’입니다.

- ◆ 지도자가 한 가지만 잘하거나, 몇 가지만 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
자꾸 자기를 만들고 행하여 두루두루 갖춰야
<자기 휴거 차원>도 높아지고 <교회 차원>도 높아집니다.

<전환>

◎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교육하고, 말씀 마치겠습니다.

- ◆ <폭포수 조경>을 쌓은 후에
성령님은 ‘50톤짜리 두꺼비 형상석’을 선물로 주셨습니다.

<폭포수 조경>을 쌓지 않았다면,
그 돌을 싣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.

- ◆ <거북이 형상석>은 세상에 많습니다.

둥근 돌에 ‘머리’만 거북이처럼 튀어나오면,
거북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.

<거북이>는 ‘장수’를 상징합니다.

◆ 그런데 <두꺼비 형상석>은

‘머리 부분’ 만 특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.

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 형상이 ‘두꺼비’와 닮아야
비로소 <두꺼비 형상석>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폭포수 조경을 쌓으면서 성령님께 선물로 받은 <두꺼비돌>은
여덟 가지가 ‘두꺼비’와 닮아 있습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두꺼비돌> 해당 부분 하나씩 표시해 주면서 넘어간다.

◆ <머리>가 두꺼비와 닮았습니다.

<눈>이 두꺼비처럼 달려 있습니다.

<입>이 두꺼비와 닮았습니다.

<온몸에 오돌토돌하게 돌아난 돌기>가 두꺼비 같습니다.

<뒷다리>가 두꺼비 같습니다.

<불룩하게 나온 배>가 두꺼비와 닮았습니다.

<불룩하고 풍성하게 나온 볼>이 두꺼비와 닮았습니다.

<히프>가 두꺼비와 닮았습니다. <끝>

◆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길

“폭포수를 쌓으려고 돌을 실어오는데,
거기서 <형상석>을 찾아봐라.” 하셨습니다.

그래서 범석 목사에게 지시했습니다.

그러다가 월명동 김성준 목사가 돌을 하나 사 왔는데,
월명동 한쪽에 내려놓고 보니 ‘두꺼비 형상’이었습니다.

성령께서 돌을 사 올 때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

얼른 치마로 싸서 가지고 오듯 하신 것입니다.

◆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.

“폭포수 만드느라 수고했으니 선물로 준다.

또 섭리인들 모두에게 주는 선물이다.” 하셨습니다.

“성령님 최고 좋은 것을 해 주셨어요!” 하며 감탄하니,

“사랑하는 자가 <형상석>을 그리도 좋아하니,

<좋아하는 것>을 선물로 해 줬다.

그래서 치마 찢어져 가면서 싸 가지고 왔다.” 하셨습니다.

◆ 그리고 더 깊이 말씀하셨습니다.

“너희도 <좋아하는 것>을 해 줘야 좋듯이,

하나님도 성자도 나 성령도 <좋아하는 것>을 해 줘야 좋다.

하나님과 성자와 나 성령이 <좋아하는 것>이 무엇이나.

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.

전능자에게는 다 있는데 ‘상대 사랑’만 없어.

그래서 ‘인간’을 창조했다. ‘사랑의 대상체’로 삼으려고.

그러니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아라.” 하셨습니다.

◆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.

“<형상석>도 ‘몇 가지나 닮았느냐’를 보고 선호하고 인정한다.

<미인>도 ‘몇 가지나 미인이나’를 보고 선호하고 인정한다.

<너희>도 ‘삼위일체를 얼마나 많이 닮았느냐’에 따라서
삼위일체가 선호하고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.

<두꺼비 형상석>이 여덟 가지나 ‘두꺼비’를 닮았으니,
귀하고 신비하고 가치 있지 않나.

이와 같이 너희도 <휴거 완성>을 두고,
올해에는 ‘각종’으로 ‘차원’을 높여
<삼위일체의 형상>과 <주의 형상>을 닮아라.

두꺼비는 ‘복’을 상징한다.

너희가 ‘각종’으로 고치고 행하여 ‘각종’으로 차원을 높이면
<하나님>께서 ‘너의 복의 근원’이 되어 주신다.

<두꺼비 형상석>이 여덟 가지나 두꺼비를 닮았으니
누가 봐도 ‘두꺼비 형상석이네!’ 하고 인정하듯,
너희도 모두 보고 인정하도록
주께 교육받고 배워서 ‘각종 것들’을 고치고 만들어라.

그러면 <휴거 차원>을 높이게 되어 인정받는다.” 하셨습니다.

- ◆ 전도, 강의, 설교, 관리, 기도, 말씀 실천,
성격 고치기, 주와 심정 일체, 삼위와 주와 소통,
사랑 생활, 감사 생활, 성삼위께 영광 돌리기,
봉사, 자기 사명의 책임 다하기 등
각종으로 고치고 변화시켜 ‘차원을 높이는 자’는
갖가지 형상을 두루 갖춘 자가 되어
삼위일체도 주도 선호하는 자가 되고,

가치 있는 자가 되고, 누가 봐도 인정하는 자가 됩니다.

- ◆ 올해는 ‘삼위일체의 형상’을 많이 닮도록 <차원>을 높여야 됩니다.

이 세상에 ‘장수의 상징 거북이’와 같은 사람은 많은데,
‘복의 상징 두꺼비’와 같은 사람은 적습니다.

올해 <복의 상징 두꺼비들>처럼 ‘많은 형상’을 갖춤으로
각종으로 차원 높이는 해, 높이 솟아오르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.